[redacted] 에이즈 有感

이영숙
본회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에이즈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 즉 진정한 사랑의 결핍, 생명경시, 비인간화 나아가 의료체계상의 모순점까지 한꺼번에 투시경처럼 보여주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에이즈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의 이중성, 보수성, 양면성 등의 모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혼남성이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경력을 훈장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용납되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십대의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을 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조차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복대를 하고 다니다가 교실에서 출산을 해야되는 비인간적인 이중성의 현실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2쌍중 1쌍이 이혼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 사회의 낮은 이혼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이혼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외도라는 편리한 창구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기혼남성의 70%가 아내외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한다.

남성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욕구의 발산 혹은 자식들과 사회적 체면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가정에서 채울 수 없는 애정과 욕구의 대리만족의 수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러브호텔, 미혼모, 낙태수술, 사생아, 에이즈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닌 겉다르고 속다른 양면성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한국은 미국사회보다 겉으로는 훨씬 건강해 보이나 문제제기를 안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곪아터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여성은 남성들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억압적인 성의 이중잣대의 희생양이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혼전, 혼후 순결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성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우리 사회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blaming a victim)모순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네가 먼저 꼬리를 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신고율이 2.2%에 (형사정책연구원, 1996년)그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문화가 남성위주의 문화이고 가해자가 사회적 힘을 지닌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피해자인 우조교를 욕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해자가 사회적 힘과 지위를 지닌 교수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을 들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덕망 높은 교수들까지 그런 짓을 한다는 현실을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을 보고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감히 고소는커녕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전체 여성 감염자중에 남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감염된 주부감염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성문제에 있어서 남성에게 허용된 관대함에 비하여 여성에게는 소극성, 수동성, 순종의 강요로 인하여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감염 위험집단이 매춘여성과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다. 매춘여성이라기보다

는 매춘여성의 고객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애매하게 여성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최근에 몽고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몽고에서는 15~40세의 모든 여성들에게 에이즈강제검사를 실시하려다가 주위의 여론에 밀려 중도에서 중지되었다. 감염율의 남성대 여성의 비율이 평균 6 : 1인데 왜 하필이면 여성에게 강제검사를 실시하냐고 물었더니 여성들은 약하며 저항이 적기 때문이라는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

태국남성들은 돈만 생기면 홍등가에 가서 매춘여성과 관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있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부들과 애인들이 수동적으로 에이즈감염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또한 에이즈가 만연하자 어린 소녀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나이어린 소녀를 선호하게되어 어린이 매춘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경우 희생자로 보고 집에서 간호해주지만 남성이 감염되면 말기환자수용소로 보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이즈 발견율이 25%에 불과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이유도 겉으로 군자연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 정죄성의 비난이 강한 양면성이 그 한 이유일 것이다. 일단 감염되면 가족에게조차 감염사실을 말하기 어려운(약60%)것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보수성 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처럼 감염자가 극단적으로 에이즈라는 질병자체의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심리적 부담을 이중고로 겪어야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이제는 검사를 받아보았자 불이익만 당하고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의식하에 검사기피증이 증가되고 있다.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자의에 의한 것이든 성폭행에 의한 것이든 그 결과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뿐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 남성의 온갖 회유, 유혹, 강압의 역할을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도 이러한 모순적인 이중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자가 미국어린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성적 표현, 대사 등에 노출되는가를 연구한 결과 수만번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집만 나서면 선정적인 영화나 연극포스터, 드라마, 비디오, 상품광고 등에 간접적 때로는 직접적 그리고 노골적 혹은 비유적인 성적 표현, 대사와 몸짓등이 즐비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처벌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할만한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을 기회나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였을 경우 자의에 의한 것이든 성폭행에 의한 것이든 그 결과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뿐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 남성의 온갖 회유, 유혹, 강압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간통도 남이 하면 바람난 암코양이고 자신이 하면 멋진 로맨스라는 말이 있다.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성교육은 의식개혁교육 특히 남성들의 정신개혁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억압의 대상으로 보는 자배적인 여성관, 남성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남성우월주의적 성향, 피임법과 임신중절수술, 모닝필이 환상이 만들어낸 지나치게 쾌락위주의 성가치관등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자기보호능력을 갖추도록 적극성과 자기존중감, 모성으로서의 책임감, 생명가치관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러한 성의식의 이중성, 양면성, 종속성은 에이즈 증가의 주범이며 에이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종속성과 희생화(victimization)을 감소시키고 남성들의 권위주의,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성의식, 군자연하며 문제를 외면, 축소, 감추려는 우리 사회의 양면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